

# 사회갈등 및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sup>1)</sup>



Public Recognition of Social Conflicts and Social Cohesion and Its Implications

김문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 국민들은 여러 갈등 유형 중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노사갈등, 빈부갈등, 이념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2년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및 국민 행복 인식 조사에서 이념갈등이 가장 심각한 갈등 유형으로 꼽힌 것과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계층 또는 경제적 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계층 또는 경제적 갈등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 유형으로 빈부갈등, 이념갈등,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노사갈등 순으로 꼽은 것으로부터 이념갈등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한 갈등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은 사회갈등 인식에 부(-)의 효과를, 정치적·경제적 부패는 사회갈등 인식에 양(+)의 효과를 각각 보였다. 사회갈등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사회통합 인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빈부갈등, 이념갈등이 여러 갈등 유형 중에서 사회통합 인식에 유의한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앞으로 사회통합의 주요 요소에 대한 정책적 개입, 세대갈등에 대한 예방적 조치, 부패 척결, 사회갈등 관리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자세 변화 등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

## 1. 들어가며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의 ‘공공분쟁통

계지표’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14년까지 우리나라에서 992건의 공공갈등이 발생했다. 이 중에서 협상, 조정, 중재와 같이 갈등 관리·조정 기

1) 본고는 정해식, 김미근,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 방안(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4장(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인식)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제가 작동한 비율은 23.3%에 그치는 반면 행정 집행, 주민투표, 법원 판결, 진압 등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된 비율은 33.0%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비율은 11.9%에 달한다. 갈등을 유발하는 주체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갈등의 장이 민간 영역에 걸친 것이든 공공 영역에 걸친 것이든, 그리고 갈등의 영향이 어느 영역으로 귀착되는 것인지 등을 불문하고 우리 사회에서 공공갈등<sup>2)</sup>은 제대로 관리되거나 조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한편, 법원행정처의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전국의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약 636만 건으로 당시 총인구 대비 11.8%에 달한다. 국민 약 8명 중 1명이 법률적 사건에 휘말려 있다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갈등이 만연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송 건수로 대표되는 갈등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공공갈등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거나 조정되지 못하는 우리 사회는 통합되지 않은 사회, 즉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사회라 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질문은 사회갈등이 심각한 사회는 통합되지 못한 사회인가, 하는 일반적인 질문으로 바꿔 볼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사회학적인 대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갈등의 기능주의적 측면에 주목한 코저(Lewis A. Coser)는 사회적 단위들이 분화하고 기능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상태가 될수록 갈등의 빈도는 높아지는 반면 갈등의 강렬성과 폭력성은 낮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게 되면 갈등 관계에 대한 규범적 조정, 현실적 쟁점에 대한 인식 확산 그리고 사회 단위들 간의 제휴 규모 확대에 따라 사회통합 수준이 높아진다.<sup>3)</sup> 즉, 어떠한 사회적 조건이 갖추어질 경우 사회갈등은 사회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통합은 사회 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격차와 차별을 줄임으로써 사회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사회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을 통해 달성되기도 한다.<sup>4)</sup> 사회갈등이 잘 관리되는 사회는 사회통합 수준이 높은 사회인 동시에 사회통합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사회통합의 기제가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로부터 사회통합과 사회갈등은 상호작용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이해는 사회갈등을 탐구함으로써 사회통합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을 파악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내 이를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다

2) 공공갈등은 “서로 상충되는 쟁점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둘 이상의 행위 주체들의 상호작용 과정이 공중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 갈등 관리 기제에 의해 다루어지는 분쟁”으로 정의된다(윤인진, 2015, 한국인의 갈등의식 현황과 변화: 제1~3차 한국인의 갈등의식조사 결과 분석, 한국사회 제16집 1호, p.8).

3) 조대엽(2014). 갈등사회의 도전과 미시민주주의의 시대·새로운 사회갈등과 공공성 재구성에 관한 사회학적 성찰. 나남. pp.26~27.

4) 전영상, 홍근석(2014). 사회통합요인과 지역사회갈등의 영향력과 관계구조에 대한 연구: 충주시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98호). p.188.

시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2016년 전국의 만 19~75세가 속한 405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이용해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사회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갈등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에 대한 양적인 접근과 달리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갈등 당사자의 상황 인식에 따라 갈등의 발생, 전개, 해결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갈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사회갈등 관리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5)</sup>

## 2.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 가. 유형별 갈등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81.5%)을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81.2%),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80.7%),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79.5%) 순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반면, 다문화갈등(49.2%),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54.8%),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54.8%),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54.8%),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54.8%)

표 1. 사회갈등 유형별 인식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계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27.4	53.3	16.3	1.4	1.7	100.0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26.0	55.2	16.6	1.0	1.3	100.0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11.9	42.9	38.0	4.6	2.5	100.0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29.6	51.9	15.0	1.6	1.9	100.0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16.0	46.2	32.0	4.4	1.4	100.0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33.6	45.9	17.6	1.4	1.5	100.0
지역 간의 갈등	17.2	41.4	32.2	7.0	2.2	100.0
다문화갈등	8.3	40.9	40.1	6.9	3.9	100.0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	10.9	47.0	33.8	3.5	4.8	100.0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04.

5) 이병량, 김서용, 전영평(2008). 한국 사회갈등구조의 진단과 해석: 수준, 원인, 대안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보. 제22권 제4호. p.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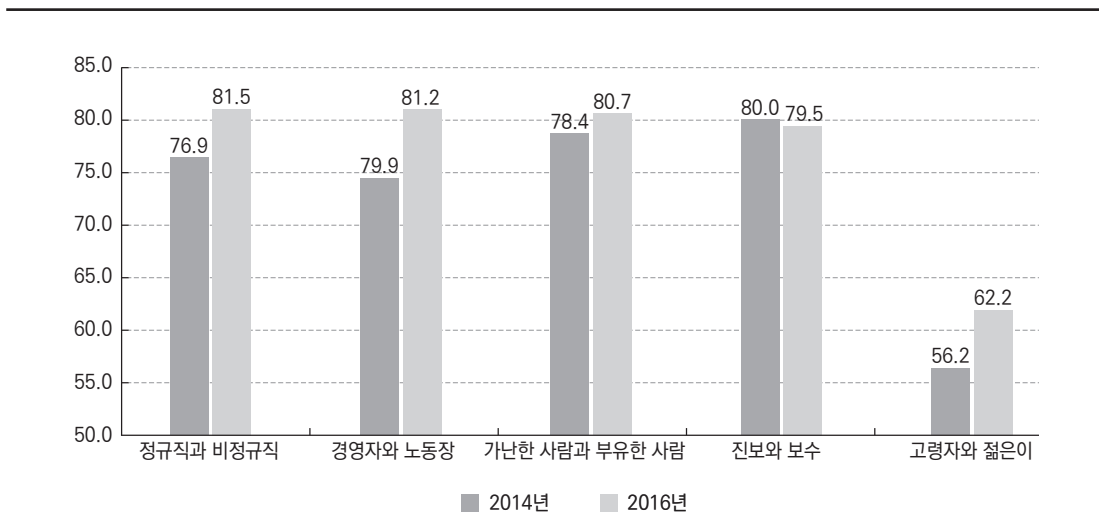
간의 갈등(57.9%), 지역 간의 갈등(58.6%)은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유형을 범주로 다시 분류하자면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노사갈등, 빈부갈등은 계층갈등이나 경제갈등의 범주로, 이념갈등, 다문화갈등,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은 가치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인데 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계층 또는 경제갈등을 가치와 관련된 갈등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이념갈등은 갈등이 가장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33.6%)이 가장 높아 가치갈등 중에서도 계층 또는 경제갈등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갈등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대 간의 갈등(62.2%)은 계층 또는 경제갈등과 가치갈등의 중간 정도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세대갈등이 경제적 이해와 가치관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14년 조사 결과와 조금 차이를 보인다. 2014년에는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80.0%),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79.9%),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갈등(78.4%),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76.9%) 순으로 조사되었다. 두 조사에서 이들 네 가지 갈등 유형이 상위에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거나 세부적인 순서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다음 [그림 1]은 두 조사의 네 가지 갈등 유형별 인식을 비교한 것인데,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을 제외하면 과거보다 갈등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차이가 큰 유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인데, 최근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의 심화 또

그림 1. 사회갈등 인식 변화: 2014년과 2016년

(단위: %)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05.

는 미미한 개선 상황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노동시장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이나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다소 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이 이념에 대한 갈등을 후순위로 밀어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은 2014년(56.2%)에 비해 2016년(62.2%)에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갈등이 점점 중요한 사회갈등 유형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나. 갈등 인식의 과거, 현재, 미래

10년 후 우리나라의 유형별 사회갈등에 대한 전망은 <표 2>와 같다. 현재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갈등 유형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63.5%),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57.6%),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55.2%),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54.0%),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4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현재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갈등 유형들이 미래에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보다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갈등 유형은 지역갈등(18.7%), 다문화갈등(16.9%), 주택 소유자와 비소

표 2. 10년 후 한국 사회갈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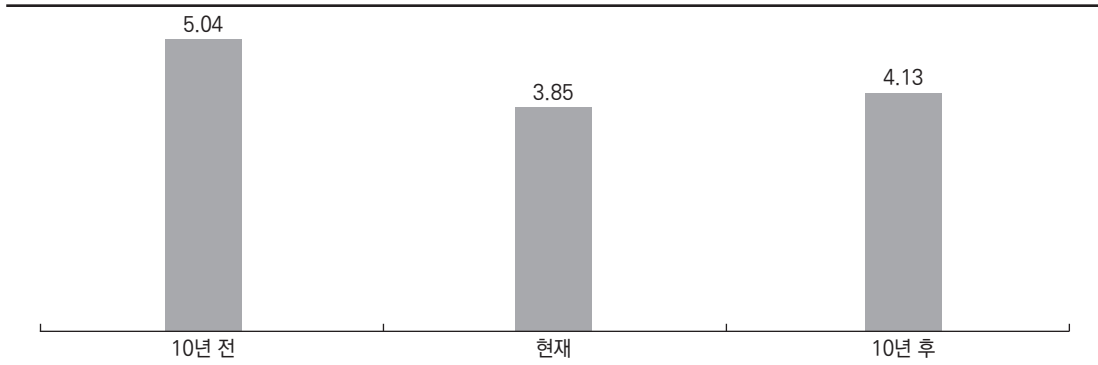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현재보다 훨씬 심해질 것이다	현재보다 조금 더 심해질 것이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다	모르겠다	계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18.8	44.7	31.9	3.7	0.9	100.0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14.6	40.6	38.6	5.1	1.1	100.0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9.2	29.8	48.2	11.3	1.6	100.0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16.6	41.0	34.8	6.3	1.3	100.0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14.5	35.4	41.2	7.6	1.2	100.0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15.3	38.7	37.6	6.4	2.0	100.0
지역 간의 갈등	7.1	27.6	44.8	18.7	1.8	100.0
다문화갈등	6.3	28.2	45.6	16.9	3.0	100.0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	7.6	32.0	49.0	7.6	3.9	100.0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11.

그림 2. 한국 사회 평가: 갈등이 심한 사회 대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단위: 점)



자료: 정해식, 김미근,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12.

유자 간의 갈등(11.3%) 등의 순이었다. 대체로 경제적인 영역의 갈등 유형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지역이나 다문화와 같은 영역의 갈등 유형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갈등이 심한 사회인지,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인지와 관련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각각 물은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라고 생각하면 0,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라고 생각하면 10으로 응답하게 했는데, 이를 점수화해 보면 10년 전 5.04에 비해 현재는 3.85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갈등이 심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0년 후에는 4.13으로 나타나 현재보다는 갈등이 다소 완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비관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 3.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 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사회갈등 유형

다양한 유형의 사회갈등 중에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유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해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45.2),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37.3%),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35.3%), 지역 간의 갈등(15.4%),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11.8%),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8.8%),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6.3%), 다문화갈등(4.3%)의 순이다.

위 결과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가치갈등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두 번째로 중요한 갈등 유형으로 꼽힌다는 점이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이념갈등은 국민들이 실제로 인식하고 있

표 3.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 유형: 1순위, 2순위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1순위+2순위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31.0	14.2	45.2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15.5	19.8	35.3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3.4	5.4	8.8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16.7	18.6	35.3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4.5	7.3	11.8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19.9	17.4	37.3
지역 간의 갈등	5.2	10.2	15.4
다문화갈등	1.7	2.6	4.3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	2.1	4.2	6.3
없음, 모름, 무응답	0.2	0.4	0.6
계	100.0	100.0	200.0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13.

는 심각성보다 과잉 소비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박길성<sup>6)</sup>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특정 정치집단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이념 문제가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언론이 이를 과잉 소비한 결과 일반 국민들은 이념갈등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한 갈등 유형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 이념이 사회통합에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는 것, 즉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념갈등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나. 사회통합에 필요한 사항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19가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 19가지 항목 중 사회갈등과 관련된 것으로 ①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②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③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이민자,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인정하는 것 ④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⑤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6) 박길성(2008). 한국 사회의 갈등지형과 경향, 한국사회 제9집 1호. pp.5-30.

조정하는 것 ⑥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중 ①은 갈등 유형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을, ②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갈등을, ③은 다문화(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갈등의 관리와 연관이 있다. 그리고 ④, ⑤, ⑥은 갈등 관리 또는 갈등 조정 방식과 관련된 문항이다.

먼저,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이는 것에 대해 80.5%가 중요하다(척도의 4와 5, 이하 동일)고 응답하였으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78.2%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59.3%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78.7%,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은 74.0%,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

에 대해서는 78.9%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19개 항목에 대해 중요하다(척도의 4와 5)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은 76.3%인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이는 것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평균을 크게 밑돈다. 갈등 조정과 관련한 항목에서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모두 평균을 웃돌지만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은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를 해 보면, 사회통합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계층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갈등 유형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갈등 관리 방식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 집단 간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조정이 사회통합에

표 4.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					합계	평균
	보통 1	2	3	4	매우 중요 5		
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이는 것	1.2	3.6	14.9	41.1	39.4	100.0	4.14
②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1.2	4.1	16.5	40.5	37.7	100.0	4.09
③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4.3	9.5	27.0	38.3	21.0	100.0	3.62
④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1.1	3.2	17.1	41.4	37.3	100.0	4.11
⑤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	1.8	4.3	19.9	42.2	31.8	100.0	3.98
⑥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	1.1	2.8	17.2	43.4	35.5	100.0	4.09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15.



더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회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갈등 관리 방식 중에서 정부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은 사후적인 갈등 조정보다 사전적인 갈등 관리가 사회통합에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최근 정부의 갈등 조정 능력에 대한 회의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4. 사회갈등 인식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

##### 가. 사회갈등 인식 결정 요인

사회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선행 연구<sup>7)</sup>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신뢰를 모형에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적 신뢰로 표현되는 사회적 자본과 더불어 사회통합의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는 사회적 포용과 사회이동성도 모형에 포함하였다. 선행 연구와 달리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에서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을 설명변수로 포함했다. 그리고 성, 연령, 학력, 소득 수준은 통제변수로 사용했다(모형은 표 5 참조).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사회적 포용과 사회적 자본은 사회갈등 인식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사회이동도 마찬가지로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유의

성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로 알려져 있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완화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직관적으로 사회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었던 지역이나 이념 성향 같은 변수들은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로그 총소득으로 대표되는 소득 수준은 다소 미약하지만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결과는 부패에 대한 인식과 사회갈등 인식 간에 회귀적 인과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모형 1>에는 정치 영역의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을, <모형 2>에는 경제 영역의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을 포함시켰는데, 두 변수 모두 사회갈등 인식에 대해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영역에서의 부패 정도의 회귀계수값(0.086)이 정치 영역의 그것(0.06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 영역보다 경제 영역에서의 부패가 사회갈등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나. 사회통합 인식 결정 요인

이번에는 주요한 유형의 사회갈등이 사회통합

7) 이원태, 김종길, 김희연(2012). 디지털 사회갈등의 새로운 양상과 사회통합의 정책방향.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

표 5. 사회갈등 결정 요인 회귀분석 결과

구분		모형 1	모형 2
설명변수	사회적 포용	-0.197*** (0.017)	-0.194*** (0.017)
	사회적 자본	-0.499*** (0.017)	-0.498*** (0.017)
	세대 간 사회이동성	-0.064* (0.030)	-0.060* (0.030)
	정치 영역 부패 정도	0.061*** (0.016)	
	경제 영역 부패 정도		0.086*** (0.017)
통제변수	지역	-0.016 (0.033)	-0.016 (0.033)
	성(남성=0)	0.023 (0.041)	0.022 (0.041)
	교육 수준	0.035 (0.035)	0.030 (0.035)
	이념 성향	0.021 (0.032)	0.023 (0.032)
	연령	0.003 (0.002)	0.003 (0.002)
	로그 총소득	0.072* (0.035)	0.073* (0.035)
상수	7.995*** (0.282)	7.876*** (0.284)	
N	3424	3424	
R <sup>2</sup>	0.449	0.45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18.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인식을 종속 변수로 하고 사회갈등 수준과 사회통합의 요소로 알려져 있는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포용,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을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성, 연령, 학력, 소득 수준을 통제변수로 사용했다(모형은 표 6 참조).

여기서 사회갈등 수준을 나타내는 설명변수로 크게 두 가지 유형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설문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

표 6. 사회통합 결정 요인 회귀분석 결과

구분		모형 3	모형 4
설명변수	사회갈등 인식	-0.207*** (0.023)	
	빈부갈등 인식		-0.176*** (0.044)
	이념갈등 인식		-0.143** (0.042)
	세대갈등 인식		0.073 (0.040)
	사회적 포용 정도	0.212*** (0.023)	0.235*** (0.023)
	사회적 자본 정도	0.136*** (0.025)	0.240*** (0.023)
	세대 간 사회이동성	0.164*** (0.039)	0.177*** (0.040)
통제변수	성(남성=0)	0.108* (0.055)	0.099 (0.056)
	교육 수준	0.046 (0.045)	0.051 (0.046)
	연령	-0.003 (0.002)	-0.004 (0.002)
	주관적 계층 인식	0.233*** (0.036)	0.231*** (0.037)
상수	3.162*** (0.295)	2.118*** (0.292)	
N	3444	3349	
R <sup>2</sup>	0.222	0.21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21-122.

해하려고 노력하는 사회인지 아니면 갈등이 심한 사회인지를 묻는 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이 심한 사회라는 것을 나타낸다(모형 3). 두 번째는 설문에서 사회통합을 가장 저해하는 것으로 확인된 두 가지 갈등 유형(빈부갈등, 이념갈등)과 최근 노동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세대갈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것이다(모형 4).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모형 3의 분석 결과를 보면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은 사회통합 인식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할수록 사회통합 수준이 낮아지는 인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빈부갈등에 대한 인식과 이념갈등에 대한 인식을 설명변수로 포함시킨

〈모형 4〉의 결과를 보면, 두 변수 모두 사회갈등 인식 변수보다 회귀계수값은 작지만 사회통합 인식에 유의한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대갈등은 회귀계수값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타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관련 설명변수 외에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가 사회통합의 세 축으로 보고 있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모든 모형에서 사회통합 인식에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시사점

이상의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정책적 관점에서 찾기보다는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갈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사회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수립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회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 등은 사회통합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우선적으로 기회의 불평등을 시정하고 사회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정책과 노동시장 정책 등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업 성취와 노동시장 성취가 결정되는 구조를 개선하

기 위한 교육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금은 그리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지만 세대갈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오늘날 청년 세대의 고용문제와 실질소득 하락 또는 정체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OECD 회원국의 사례와 같이 청년이 새로운 빈곤위험집단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는 복지제도, 사회지출의 세대 간 분배 등에서 심각한 세대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정책에서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인지가 제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진단하고, 현재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성인으로서의 이행(노동시장, 주거, 결혼 및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에서의 부패 역시 사회갈등 관리와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기회의 공정성, 분배의 공정성, 조건의 공정성이라는 세 가지 영역의 공정성은 사회갈등과 부(-)의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실증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회갈등 해소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sup>8)</sup> 정치와 경제 영역의 부패는 기회와 조건의 공정성을 해침으로써 사회갈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의 부패가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동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8) 이건(2013). 사회통합 구현을 위한 공공성·사회갈등 실태조사 기초분석 및 시사점. ISSUE PAPER. 통권 2013-09. 한국행정연구원. p.4.

넷째,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정부,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하다. “사회갈등은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민주화된 사회일수록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없애야 할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사회통합을 제도적 수준으로 수용함으로써 이른바 ‘갈등의 제도화’를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다.”<sup>9)</sup>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사회갈등은 혼란이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통합을 견인할 수 있고, 갈등의 제도화는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갈등을 제도화하지 못하고 억압해야 할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가 보여 왔던 갈등 관리의 양상을 보면 갈등 관리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갈등을 제도화하기보다는 특정 사안(국민 안전, 역사교과서, 전술무기 배치 등)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구분하고 이를 이념의 문제로 확대해 민-민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공공갈등 해결의 책임을 비켜 가는 방식을 취해 왔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즉, 갈등을 조정, 관리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념 문제로 비화하는 방식 등으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갈등 사회에 대처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자세 또한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

9) 조대엽(2014). 갈등사회의 도전과 미시민주주의의 시대·새로운 사회갈등과 공공성 재구성에 관한 사회학적 성찰. 나남. pp.26-27.

10) 윤인진(2015)은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그 이전에 발생했던 대형 사고(예를 들어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와는 달리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고 갈등한 최초의 정쟁화 된 재난 사고”로 본다. 그리고 “유족들의 진상 규명 요구를 불순한 정치적 동기를 가진 것으로 보수언론이 왜곡 보도하고 이에 동조한 보수 단체들이 반대 시위를 하면서 세월호 사건은 이념갈등으로까지 확산되었다”고 진단한다(윤인진, 2015, 앞의 책, p.4).